



전문건설 2분기 경기실사지수 4.8p 떨어졌다

●코스카-건설정책연 '전문건설업 실태분석' 보고서

57.7로 나타나... 3분기는 더 악화 45.1 전망도
이중계약서·하도대 부당감액 등 불공정행위 여전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회장 표재석)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이 최근 함께 발표한 '2014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분기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57.7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실사지수 하락의 원인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모두 미흡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더해지며 경제심리가 위축된 결과"라며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업계 안팎의 평가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분기 전망이 2분기보다 더 악화될 45.1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다만, 내수 활성화와 주택시

장 정상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등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전문건설사들은 침체된 전문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47%)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발주 확대(26%)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상의 애로 사항으로는 △수주 부진(38%)과 △경쟁심화(16%) △인력난·인건비 상승(15%) △자금부족(11%) 등을 지목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원·하도급 불공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하도급대

금 부당감액이 여전한 것은 물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82%,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 시 재입찰 경험은 1~2회로 나타났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역시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2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역시 50%(하도급대금 직불 51%, 이유 모름 38%), 각종 보증서를 특정 발급기관으로 강요받는 비율 역시 1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은 코스카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에 재직 중인 308명의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상곤 기자